



2013년 1월 14일

투자전략 Daily

투자전략 | 노근환 ☎ 3276-6226
시 황 | 박소연 ☎ 3276-6176
글로벌전략 | 박중제 ☎ 3276-6560
기술적분석 | 김철중 ☎ 3276-6247
계량/파생 | 안 혁 ☎ 3276-6272
경제분석 | 전민규 ☎ 3276-6229
이머징마켓 | 윤향진 ☎ 3276-6280
채권분석 | 이정범 ☎ 3276-6191
크 레 디트 | 김기명 ☎ 3276-6206



•채권분석

1월 금통위 코멘트: 물가보다 성장세 지원에 방점

•이머징마켓 동향

물가지표 예상 상회, 상해증시 약세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LG 외 5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농심 외 5종목

•기업분석

NHN,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롯데하이마트, 멜파스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선물 옵션 시장 동향

•증시 캘린더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01/04(금)	01/07(월)	01/08(화)	01/09(수)	01/10(목)	01/11(금)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011.94	2,011.25	1,997.94	1,991.81	2,006.80	1,996.67
	등락폭	-7.47	-0.69	-13.31	-6.13	14.99	-10.13
	등락종목						
	상승(상한)	419(10)	393(10)	370(12)	379(9)	473(12)	372(9)
	하락(하한)	377(0)	398(1)	430(1)	429(1)	308(3)	444(0)
	ADR	105.25	106.00	106.25	106.15	108.17	108.57
	이격도						
	10 일	100.68	100.55	99.89	99.53	100.16	99.58
	20 일	101.48	101.25	100.45	100.04	100.67	100.06
	투자심리	70	60	50	50	50	40
코스닥	거래량 (백만 주)	373	533	490	598	495	467
	거래대금 (십억 원)	4,677	3,942	3,904	3,944	4,471	4,364
	코스닥지수	504.84	508.72	509.01	511.94	514.48	515.42
	등락폭	5.77	3.88	0.29	2.93	2.54	0.94
	등락종목						
	상승(상한)	566(12)	529(10)	436(12)	483(7)	508(5)	451(11)
	하락(하한)	326(2)	390(0)	481(1)	421(0)	408(1)	469(1)
	ADR	100.50	101.82	105.66	109.29	109.87	110.83
	이격도						
	10 일	103.01	103.26	102.70	102.59	102.47	101.99
	20 일	103.02	103.74	103.67	104.02	104.26	104.18
	투자심리	50	60	70	80	80	90
	거래량 (백만 주)	395	412	426	494	427	436
	거래대금 (십억 원)	1,862	1,804	1,737	1,851	1,801	2,045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445.8	1,042.8	860.5	235.7	88.5	224.8	57.2	31.2	192.5	43.8
	매도	2,277.7	1,050.6	1,017.0	340.2	135.8	239.4	62.8	48.3	166.6	47.5
	순매수	168.0	-7.8	-156.5	-104.5	-47.3	-14.6	-5.5	-17.1	25.9	-3.7
	01 누계	68.1	357.3	-401.8	-148.3	223.9	-380.9	-115.1	33.2	22.9	-23.6
	13 년 누계	68.1	357.3	-401.8	-148.3	223.9	-380.9	-115.1	33.2	22.9	-23.6
코스닥	매수	1,877.6	62.7	108.3	14.9	17.8	31.6	6.0	5.5	29.4	19.1
	매도	1,864.0	71.5	109.2	17.0	11.4	28.5	8.4	2.7	36.2	22.9
	순매수	13.6	-8.8	-0.9	-2.1	6.5	3.1	-2.4	2.8	-6.8	-3.8
	01 월 누계	-104.3	17.3	96.5	14.9	18.2	36.5	5.5	-5.9	21.6	-9.5
	13 년 누계	-104.3	17.3	96.5	14.9	18.2	36.5	5.5	-5.9	21.6	-9.5

1월 금통위 코멘트: 물가보다 성장세 지원에 방점

- ▶ 1월 금통위, 기준금리 2.75%로 동결하였음
- ▶ 그러나 경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
- ▶ 금리인하 가시권, 당분간 국고채 3년 2.73~2.80%, 장단기 금리차는 소폭 축소 전망

1월 금융통화위원회, 정책금리 2.75%로 동결

2013년 1월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하였다. 2012년 10월 금리인하 이후 세 달째 동결이다. 신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인 1월에 금리인하가 어렵다는 인식으로 금리동결은 시장 컨센서스였다. 최근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금리인하 기대감이 급격히 높아졌으나, 1월 금통위는 금리동결을 선택하였다.

사실상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

우리는 금통위 성명서인 통화정책방향에 '저성장 지속으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 이라고 적시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저성장으로 인한 성장잠재력 훼손을 막으려면 성장률을 높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1월 금통위가 사실상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금리의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판단이다.

물론 금통위는 언제나처럼 물가안정도 강조하였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이 물가안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물가안정이라는 의례적인 문구에 방점을 두기는 어렵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가 2013년 2.5%, 2014년 2.8%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물가가 2014년까지 현행 한국은행의 중기물가안정목표구간인 2.5%~3.5%의 하단에 머물 것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운용의 초점이 당분간 물가보다는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1분기 중 금리인하가 재개될 것이며 상반기 중 두 차례 금리인하가 단행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한다.

금리인하 가시권, 장단기 금리차 축소 전망

우리는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가 가시권에 들어왔으며, 2월 금리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한다. 1월 금리동결에도 향후 금리인하 기대감이 유지될 것이라는 점에서 채권시장의 조정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금리인하 기대감만으로 이미 기준금리(2.75%) 아래로 내려간 단기물 금리의 추가 하락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당분간 국고채 3년 금리는 2.73~2.80%에 머물 것으로, 3년-10년 스프레드는 25bp 수준까지 축소될 것으로 전망한다.

*상기 보고서는 2013년 01월 11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물가지표 예상 상회, 상해증시 약세

- ▶ 중국 국가통계국,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5%, 7개월 만에 최고(직전 2.0%)
- ▶ 중국 국가통계국, 12월 생산자물가 상승률 -1.9%, 3개월 연속 반등(직전 -2.2%)
- ▶ 중국 철도부, 올해 철도건설 고정자산투자 잠정 목표치 6,500억 위안

상해증시 1.8% 급락
금융, 부동산, 금속주
큰 폭 하락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가 하루 만에 1.8% 급락했다. 강보합세로 개장한 후 장중 지수 낙폭을 확대했다. 거래금액은 1,016억 위안으로 직전일에 비해 증가했다. 오전에 발표된 중국의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예상을 상회해 7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향후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적인 통화완화 여지가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졌다. 최근 인민은행이 춘절을 앞두고 기준율을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도 약화됐다. 이에 따라 통화정책에 가장 민감한 금융, 부동산, 금속주가 큰 폭 하락하며 지수 약세를 이끌었고 건설자재, 에너지 관련주에도 차익실현 매물이 증가했다. 증권(-3.8%), 시멘트(-3.6%), 유틸리티(-3.4%), 부동산(-3.4%), 석탄(-3.3%), 철강(-2.9%), 정유/화학(-2.7%), 비철금속(-2.4%), 건설(-2.4%), 은행(-2.1%), 신재생에너지(-2.0%), 기계(-1.9%), 음식료(-1.8%), 석유/천연가스(-1.4%) 등 대다수 업종이 뚜렷한 약세를 보였다. 반면 항공, 통신장비업종은 강세를 나타냈다.

■ 홍콩 시장

홍콩 H지수는 사흘 만에 반락했다. 12월 중국 수출지표 호조 및 일본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승인 호재에 오전 상승세로 출발했다. 그러나 중국 물가지표 발표 이후 매수 심리가 뚜렷하게 위축됐다. 12월 중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해 7개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생산자물가는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경기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압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예상보다 빠른 물가상승으로 최근 부각됐던 기준율 인하 기대도 축소됐고 정부의 통화정책 여지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했다. 모든 업종이 약세를 나타낸 가운데 보험, 은행, 건설, 등 최근 지수 상승세를 이끌었던 업종들이 가장 크게 내렸고 정유, 자동차, 전력주도 약세였다.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 분	1/11(금)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2,243.00	-1.78	-1.49	-1.15	-1.15
홍콩 H	11,842.59	-0.74	-0.79	3.55	3.55
인도 SENSEX	19,711.95	0.25	-0.36	1.47	1.47
러시아 RTS	1,570.50	-0.10	2.89	2.85	2.85
브라질 보베스파	61,678.31	0.16	-2.58	1.19	1.19
베트남 VN	462.69	0.56	8.60	11.83	11.83
MSCI 이머징마켓	1,076.99	0.37	-0.08	2.07	2.07

주: 11일 오후 5시 20분 기준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금리 동결, 원화 강세 등 악재 속 중소형주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며 코스닥 515P선에 안착

- 미국 증시는 본격적인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중국의 무역 지표 개선 및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 발언이 호재로 작용하며 상승, S&P500은 5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마감. 2,000P선을 훌쩍 넘으며 강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일본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승인에 따른 엔화 약세 및 뱅가드 벤치마크 변경 개시에 따른 매물 부담 우려에 하락반전, 장중 1,990P선이 무너지기도 했으나, 개인의 저가 매수세와 연기금의 개입으로 낙폭을 다소 줄이며 마감. 상승세로 출발한 코스닥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에 하락반전하기도 했으나, 개인의 매수세가 확대되며 낙폭을 만회, 두 달여 만에 515P선 안착에 성공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전분당 가격 인상 및 자회사 성장성이 부각된 대상이 신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소속 걸그룹 소녀시대가 빌보드 각종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에스엠이 급등. 또한, 미국 보스턴시가 독감 유행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함에 따라 백신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으며, 'CES 2013'에서 삼성전자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공개함에 따라 플렉서블 스마트폰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며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임. 반면, 갤럭시S4 납품사에서 제외됐다는 설이 확산되며 멜파스가 하한가를 기록

종목/테마	내 용
대상(001680) ▶31,850(+7.06%)	전분당 가격 인상 효과로 신고가 경신 - 가공식품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분당의 원료인 옥수수 가격 상승으로 주요 제품의 순차적인 가격 인상 가능성이 고조되며 신고가 경신 - 아울러, 지분의 70%를 보유한 식자재 유통회사 대상베스트코의 올해 매출액이 6,000억원대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 또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
에스엠(041510) ▶48,000(+8.47%)	소녀시대 빌보드 K-POP 차트 1위 소식에 급등세 - 소녀시대의 정규 4집 앨범 '아이 갓 어 보이'가 미국 빌보드 각종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급등세 - 또한, 이번 앨범은 빌보드 히트시커스 앨범 차트, 유튜브 차트에서도 2위를 차지,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으며 인기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
백신주	미국 독감 비상사태 선포 소식에 급등세 - 미국 보스턴시가 독감 유행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보건 당국이 이번 독감은 지난 2003년 겨울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우려감이 고조되며 강세 - 케이피엠테크(042040), 파루(043200), VGX인터(011000, 이상 상한가), 대한뉴팜(054670, +6.22%), 중앙백신(072020, +5.70%), 이-글벳(044960, +5.33%) 등 강세
플렉서블디스플레이주	삼성전자의 플렉서블 스마트폰 기대감에 강세 -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13'에서 삼성전자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YOUM(움)'을 공개함에 따라 이를 채용한 차세대 스마트폰 출시 기대감에 강세 - 디에스케이(109740), 아이컴포넌트(059100, 이상 상한가), 동진썬미캡(005290, +12.97%), 하이셀(066980, +11.54%) 등 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유망종목: LG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LG (003550)	65,500 (-2.2)	67,000 (01/03)	-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했던 LG전자가 휴대폰 부문의 실적 개선, OLED TV 출시 등으로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며, LG화학도 화학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정보소재 등으로의 사업다각화를 통해 견조한 수익성 유지하고 있음 - 주요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세를 감안하면 NAV 대비 할인율이 50%에 달하는 저평가 매력에 재부각될 가능성 상존
대양전기공업 (108380)	12,800 (-1.2)	12,950 (1/2)	- 선박용 조명기구 전문회사로 해양 플랜트 조명으로 사업영역 확대. 추가로 군함용 통신시스템 및 배전반을 생산하고 있으며, 자동차용 센서를 신사업으로 추진 - 주력인 선박 조명과 플랜트, 방산 등 전 분야에서 안정적인 실적 흐름 지속.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자동차용 압력 센서에 대한 국내 완성차업체의 국산화 의지와 맞물려 2013년부터 가시적인 성과 기대
MDS테크 (086960)	14,100 (+4.4)	13,500 (1/2)	- 임베디드 소프트웨어(OS, 애플리케이션, 개발툴) 전문업체로 차량 및 국방/항공 분야 I T융합 수요 확대 등으로 중장기 성장성 부각 가능성. - 4분기에는 계절성(연말 고객사 SW관련 예산 소진)과 더불어 현대오트론 등 자동차 전자회사향 매출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 모멘텀 재개 예상 - 성장성, 기술 경쟁력, 진입장벽 등을 감안할 때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동일금속 (109860)	13,500 (-0.7)	13,600 (1/2)	- 크롤러크레인 트렉슈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국내외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제품다변화를 통해 2012년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전망 - 글로벌 광산 개발투자 확대에 따른 초대형 굴삭기 트렉슈 수요 증가세 지속 전망 - 독창적 아이템으로 가격 경쟁력, 일괄공정체제로 원가경쟁력
엠케이전자 (033160)	4,375 (-5.7)	4,640 (1/2)	- 최근 본딩와이어 시장은 비용부담이 큰 골드(Gold)본딩와이어의 대체품으로 구리를 사용한 본딩와이어(PCC; Pd Coated Copper Wire)가 개발돼 시장 구조의 변화가 진행 중임, 당사는 글로벌 구리본딩와이어 시장에서 일본 NMC사에 이어 M/S 2위 기록 중 - 현재 구리본딩와이어는 대만 패키지 업체들로 주로 공급되고 있으나, 향후 국내 칩메이커들로도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PCC의 매출 확대에 의해 2%대에 불과하던 영업이익률은 점진적인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로엔 (016170)	14,750 (+7.3)	13,750 (1/2)	- 2013년 음원가격 상승으로 멜론 서비스의 가입자당 매출액(ARPU) 증가와 함께 SKT와의 공동 마케팅으로 인한 가입자 증가에 따른 성장성 부각 가능성 - 저작권 보호, 콘텐츠 수요 확대 등 우호적인 산업, 보유 아티스트 라인업 확대, 수직 계열화된 사업부문의 경쟁력, 경쟁업체 대비 저평가 매력 등을 주목할 필요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LG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농심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2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농심 (004370)	293,500 (+7.9)	272,000 (01/03)	2,148	133	128	22,127	13.3
			- 삼다수사업 철수, 벤조피렌 이슈 등으로 주가 부진했으나, 자체 브랜드 '백산수' 런칭과 프리미엄 신제품 (블랙신컵 및 신라면블랙) 판매 호조, 수출 증가 등을 주목할 필요 - 라면시장 점유율 회복, 경쟁구도 안정화, 제품라인업 강화, 기저효과 등으로 수익성 개선 추세 지속 전망				
LS (006260)	94,400 (-0.6)	95,000 (1/2)	13,604	596	356	12,829	7.4
			- 2013년에는 LS전선과 LS산전의 실적 개선 예상. LS전선은 고수익 제품인 해저전력선의 해외 프로젝트가 실적에 반영되고 중동 초고압 전력선의 호황기 진입에 따른 실적 개선 예상 - 또한 LS산전은 이라크를 필두로 동남아시아 시장으로의 확대, 신규 사업 적자 축소 등으로 영업이익 개선 예상. LS니코동제련도 도시광산 자회사의 성장으로 이익 증가 전망				
삼성전자 (005930)	1,533,000 (-2.7)	1,576,000 (1/2)	230,152	34,702	27,841	184,578	8.3
			- 갤럭시S3의 판매 호조에 따른 스마트폰 판매 증가 및 이익률 상승으로 안정적인 실적 흐름 지속 - 휴대폰 부문의 캐시카우 역할이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실적 개선 본격화로 2013년에도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전망				
NHN (035420)	228,500 (+0.4)	227,500 (1/2)	2,694	779	580	13,205	17.3
			-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높은 검색 점유율 유지 -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인 '라인(LINE)'의 일본 등 해외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로 중장기 성장원 확보 - 워닝일레븐 온라인 등 신규 대작 게임들의 출시로 웹보드게임 부진을 만회할 전망				
KCC (002380)	303,500 (+0.5)	302,000 (1/2)	3,731	271	264	26,935	11.3
			- 2012년 하반기부터 주택 입주량이 3년 만에 증가세로 반전함에 따라 이익의 Down-side Risk 완화. 전략적 지분 매입을 통한 Captive market을 확보하고 있어 경쟁업체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 안정성 확보 - 전방산업의 업황 바닥 통과 가능성, 수직 계열화를 통한 시장 지배력 강화, 이익 안정성 등을 감안할 때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LG화학 (051910)	324,000 (-4.7)	340,000 (1/2)	24,430	2,296	1,740	23,666	13.7
			-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다각화된 사업구조와 높은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으로 안정적인 이익 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LCD용 유리기판, 2차전지 등 장기 성장성을 주목할 필요 - 석유화학 제품의 스프레드 개선, 정보전자소재 및 전지 제품의 판매량 증가 등으로 실적 개선 기대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삼성전자, LG화학, NHN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현재 NHN 발행주식의 자기주식취득 위탁 증권사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NHN(035420)

매수(유지)

목표가: 330,000원(유지)

종가(1/10): 229,000원

4Q12 Preview : 라인 게임 성과 양호하다.**■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33만원 유지**

NHN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33만원(2013년 예상 EPS 13,628원에 목표 PER 23.7배 적용)을 유지한다. 근거는 다음 세가지다. 1) 라인 가입자가 곧 1억명을 돌파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라인 게임 성과가 양호하고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일본 법인의 실적이 라인 외에도 네이버 재팬의 디스플레이 광고와 게임 매출 증가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3) 수익성도 2013년부터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 수준 예상

4분기 영업수익과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9.9%, 10.9% 증가한 6,471억원, 1,67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Fnguide 컨센서스인 6,353억원, 1,734억원과 각각 1.9%, -3.7% 차이다. NHN은 4분기 실적부터 새로 바뀐 K-IFRS에 맞춰 기타영업수익과 기타영업비용이 반영되지 않는 영업이익(우리 추정치는 1,905억원)을 발표할 예정이다. 4분기 검색광고와 디스플레이광고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6.6%, 21.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게임 매출은 웹보드 게임 매출이 자율 규제에 감소하겠지만, 모바일 게임인 '피쉬아일랜드'와 일본 게임 매출 성과로 전분기대비 3.8% 줄어드는데 그친 것으로 추정된다. 기타에 포함된 라인의 4분기 매출은 280억원(게임 140억원, 스티커 106억원, 공식계정 30억원 등)으로 예상된다.

■ 라인 가입자 다음주 1억명 돌파 예상, 라인 게임 2013년 매출은 1,540억원 전망

라인 가입자는 2012년말 9,300만명에 달했고 다음주에 1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월부터 출시된 라인게임의 성과가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다. 라인 Bubble! 과 라인 POP이 1월 10일 일본 구글플레이 기준 무료 게임 다운로드 각각 1, 3위를, 라인 POP은 매출 순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라인 POP이 일본에서만 일 매출액이 2~3억원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대만, 태국 등에서도 높은 순위인 점을 감안하면 라인 게임의 전체 일 매출액은 적어도 3~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시되는 게임 수가 늘어나고, 장르도 다양해져 라인 게임의 2013년과 2014년 매출은 각각 1,540억원, 1,98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웹보드 게임에 대한 규제 시행은 2월 이후로 예상

문화체육관광부의 웹보드게임 사행성 방지를 위한 규제가 시행되는 시기는 빨라도 2월 중순 이후가 될 전망이다. 최종 규제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받고, 법제처의 검토를 거쳐 확정되기 때문이다. 게임업계에서는 지금까지 사행성 방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이번 규제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게임성이 크게 훼손되어 이용자들이 이탈해 수익 감소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 규제 시기를 늦추고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한 상황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세전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2010A	1,785	590	603	473	10,553	13.6	684	21.5	14.1	5.6	41.0
2011A	2,121	620	632	450	10,134	(4.0)	709	20.8	11.9	4.2	31.0
2012F	2,381	635	674	502	11,428	12.8	736	19.9	12.6	3.8	28.5
2013F	2,745	748	791	593	13,628	19.2	870	16.8	10.2	3.2	27.3
2014F	3,157	965	1,022	767	17,617	29.3	1,084	13.0	7.8	2.7	27.8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3년 1월 1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SK텔레콤(017670)

매수(유지)

목표가: 200,000원(유지)

종가(1/10): 153,500원

4Q12 Preview: 4분기 수익은 예상치를 크게 상회

■ 매수의견과 목표주가 200,000원 유지

매수의견과 목표주가 200,000원을 유지한다. 목표주가는 12MF EPS에 과거 4년 평균 PER(9.1배)을 적용해 산출했다. 2012년초에 동사의 주가는 배당락 이후 경쟁심화로 약세를 보였으나 2013년초에는 LTE 효과 등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매수의견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2012년 4분기에 마케팅경쟁이 완화돼 수익이 호전됐으며 이는 2013년에도 이어질 것이다. 2) LTE 가입자 증가로 인한 가입자당 매출액(ARPU) 증가로 성장성이 부각될 것이다. 3) SK플래닛은 성장성이 높고 SK브로드밴드, SK하이닉스가 흑자로 전환돼 자회사의 기업가치가 높아질 전망이다. 4) 최근 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valuation이 매력적이다. 12개월 forward PER이 7.0배, PBR이 0.8배로 낮아 저평가됐다. 배당수익률은 6.1%에 달한다. 리스크 요인은 가입비 인하 압력이다. 2013년 가입비 매출은 2,661억원으로 추정된다.

■ 4분기 수익성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

4분기 수익성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전망이다. 매출액은 4조 2,076억원으로 예상 수준이나 영업이익은 5,001억원으로 컨센서스를 24.0% 웃돈 것으로 보인다. 경쟁 완화로 마케팅비용이 감소한 데다 제반 비용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순이익은 6,492억원으로 컨센서스를 49.5% 상회할 것이다. 포스코 지분 1.4% 매각이익 2,718억원, 3개 건물 매각이익(1,000억원으로 추정)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4분기 매출액은 ARPU 증가로 전분기 대비 2.0%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방통위의 보조금 규제로 마케팅비용이 감소해 66.3% 증가할 전망이다.

■ LTE 가입자 증가로 ARPU 증가세 전환

LTE로 성장성이 본격화될 것이다. 2012년말 LTE 가입자수는 760만명(비중 28.3%)으로 연초 목표 600만명을 웃돌았다. 2013년 가입자수는 1,400만명(51.4%)으로 늘어날 것이다. LTE 가입자수 증가로 4분기 ARPU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세로 전환되고 13년에는 전년 대비 4.2%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2013년 영업이익은 13.3% 증가 전망

2013년 영업이익은 ARPU 증가와 마케팅경쟁 완화로 전년대비 13.3% 증가해 3년만에 증가세로 반전할 전망이다. 다음 이유로 경쟁이 완화될 것이다. 연초 영업정지로 보조금이 줄고 중도 약정해지 위약금제 도입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3G에서처럼 LTE 보급률이 30%를 넘어서는 2013년초부터는 LTE 가입자 유치의 유인이 줄어들 전망이다. 2020년까지는 4G 이후 새로운 기술이 없어 설비투자는 2013년부터 감소할 것이다. 설비투자 감소로 가용현금흐름(free cash flow)이 늘어 배당 여력이 높아질 것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세전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2010A	15,599	2,286	2,318	1,842	25,599	48.5	4,588	6.8	3.8	1.0	16.4
2011A	15,988	2,131	2,183	1,613	22,848	(10.7)	4,614	6.2	2.8	0.8	14.0
2012F	16,326	1,682	1,738	1,278	18,336	(19.7)	4,256	8.3	3.8	0.8	10.7
2013F	17,065	1,905	1,987	1,515	21,738	18.6	4,571	7.0	3.3	0.8	11.9
2014F	17,530	1,984	2,497	1,879	26,964	24.0	4,655	5.7	3.1	0.7	13.7

*상기 보고서는 2013년 1월 1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SK브로드밴드(033630)

중립(유지)

총가(1/10): 4,805원

4Q12 Preview: 시장 예상 수준

■ 통신주 중 가장 높은 valuation이 부담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중립의견을 유지한다. 근거는 두 가지다. 1) 통신업체 중 valuation이 가장 높다. 2013년 PER이 18.4배로 SKT 7.0배, KT 6.7배, LG유플러스 9.4배를 상회한다. 2) 수익성은 개선되고 있으나 개선 속도가 시장의 기대보다 더디다. 2년째 수익성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고 있다. 8월 중순 이후 주가가 급등한 점도 부담요인이다. 다만 이동통신과 달리 경쟁이 완화되고 요금인하 압력이 없는 점은 주가 변동성을 줄일 것이다.

■ 4분기 영업이익은 최근 낮아진 시장 예상치 수준

4분기 영업실적은 시장 예상치 수준으로 추정된다.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253억원으로 시장 예상 수준일 것이다.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1월 추정 297억원에서 낮아졌다. 4분기 매출액은 가입자수 증가와 기업사업(B2B) 매출 증가로 전분기 대비 7.9% 증가할 전망이다. IPTV 매출액은 가입자가 전분기 대비 7.3% 늘어 7.6% 증가할 전망이다. SK텔레콤 유선망 구축 용역 매출은 4분기에 집중돼 매출 증가를 주도했다. 영업이익은 매출 증가로 전분기 대비 28.7% 증가할 전망이다. 4분기 연속 영업이익 규모가 증가 추세다. 경쟁사가 LTE 가입자 유치에 주력하고 있어 유선통신 시장은 경쟁이 완화됐다.

■ 12년 흑자 전환, 13년 수익성 개선

2013년에도 수익성 개선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2013년 매출액은 기업사업과 IPTV 매출 호조로 전년 대비 7.7% 늘고 영업이익도 64.0% 증가할 것이다. 순이익은 12년에 203억원 흑자로 전환되고 13년에는 772억원으로 전년 대비 28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3월 브로드밴드미디어(지분율 100%) 흡수합병으로 IPTV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2013년 이자비용은 30억원 절감될 것이다.

■ 기업사업과 IPTV가 매출 성장을 주도

기업사업과 IPTV가 성장 동력이다. 12년 기업사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20% 늘어날 전망이다. 매출비중이 11년 33.4%에서 12년 36.8%, 13년 38.0%로 높아지며 전체 매출 성장을 주도할 것이다. IPTV는 가입자가 증가하고 홈쇼핑수수료 증가, PPV(Pay per view) 호조로 12년, 13년 가입자당 매출액(ARPU)이 각각 14.3%, 5.9% 증가할 것이다. 12년, 13년 IPTV 매출액은 각각 42.5%, 33.1% 증가할 전망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세전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2010A	2,137	(23)	(120)	(120)	(405)	NM	452	NM	6.7	1.4	(10.2)
2011A	2,313	65	(14)	(14)	(48)	NM	536	NM	4.3	0.9	(1.3)
2012F	2,520	78	20	20	69	NM	553	67.6	4.7	1.2	1.8
2013F	2,715	128	77	77	261	279.5	587	18.4	4.3	1.2	6.8
2014F	2,873	181	133	133	449	72.3	632	10.7	3.9	1.1	10.7

*상기 보고서는 2013년 1월 1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롯데하이마트(071840)

매수(유지)

목표가: 95,000원(유지)

종가(1/10): 65,300원

4Q12 Preview: 4분기 부진은 이미 반영, 올해 성장에 주목

■ 4분기 실적 부진

롯데하이마트의 4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462억원을 하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매출은 전년동기와 유사한 수준에 그쳤다. 모바일과 TV 매출은 견조했지만 4분기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김치냉장고 매출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세일 기간 확대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큰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4분기 영업이익은 33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4%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매출 부진보다는 일회성 비용(150억원)이 주요 요인이다. 일회성 요인을 제외할 경우 4분기 영업이익은 480억원으로 산출되며, 컨센서스 462억원을 소폭 상회한다. 조달금리 하락에 따른 4분기 이자비용 감소폭은 3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11월 중순 이후부터 적용된 수준이며, 연간 250억원의 이자비용 개선이 예상된다.

■ 최근 주가 부진은 매수 기회

최근 롯데하이마트의 주가수익률은 부진하다. 4분기 실적 부진과 롯데쇼핑 시너지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최근 주가 부진을 매수 기회로 판단한다. 일회성 요인을 제거할 경우 영업이익은 여전히 우상향 추세에 있으며, 올해부터는 금융비용 개선이 더해지면서 EPS 증가율은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롯데쇼핑과의 시너지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아직 구매통합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따라서 이익 개선 시점도 늦춰질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는 롯데쇼핑 가전채널의 이전에 따른 매출 증가는 2분기부터, 구매통합에 따른 이익 개선은 하반기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마트의 디지털파크 부문부터 시작되어 롯데쇼핑 모든 채널의 가전매출이 점진적으로 롯데하이마트로 이전될 전망이다.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95,000원 유지

롯데하이마트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95,000원을 유지한다. 목표주가는 2013F PER 15.0배를 적용하여 산출했으며, 현재주가는 2013F PER 10.1배에 거래되고 있다. 롯데쇼핑 가전매장을 통한 매출증가는 예정된 사실인데, 시너지 발현 시점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저하기에는 너무 매력적인 valuation이다. 4분기 실적 부진은 이미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하락에 대한 우려보다 상승여력에 대한 기대가 반영될 시기로 판단된다. 우리가 추정하는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율은 각각 25%, 41%이며, 순이익은 소비호황기였던 2011년(1,407억원)보다 더 높을 전망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세전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2010A	3,052	215	143	107	10,225	111.9	252	NM	4.6	NM	13.0
2011A	3,411	259	187	141	6,855	(33.0)	300	11.8	8.8	1.3	11.6
2012F	3,230	166	105	80	3,402	(50.4)	210	20.2	11.2	1.1	5.5
2013F	4,027	234	198	152	6,443	89.4	282	10.1	7.8	1.0	9.8
2014F	4,751	290	262	201	8,508	32.1	347	7.7	5.9	0.9	11.8

*상기 보고서는 2013년 1월 1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멜파스(096640)

중립(유지)

총가(1/10): 24,750원

4Q12 Preview: 예상보다 더딘 터치패널 모듈 경쟁력 회복

■ 투자 의견 ‘중립’ 유지, 하반기 영업이익 성장을 기대해야 할 때

현 시점에서 1) 글로벌 경쟁업체들의 연이은 신규 터치칩 출시로 인한 삼성전자 내 터치칩 공급 경쟁 심화, 2) 주요 고객사의 공격적인 터치패널 단가인하 지속은 멜파스의 향후 이익 성장성을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판단한다. 이를 반영하여 2013년 예상 EPS를 37% 하향하며, 동사에 대한 투자 의견 ‘중립’을 유지한다. 현 주가는 2013F PER 18.2배로 글로벌 Peer 대비 26% 할증된 수준이다.

■ 4분기 터치패널 출하량 확대로 매출액은 +60.5% QoQ, 다만 영업이익은 -16% QoQ

4분기 멜파스의 예상 매출액은 1,486억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23% 상회할 전망이다. 동사의 G1F타입 터치패널 출하량이 +96% QoQ 성장하였기 때문이다. 터치패널의 핵심부품인 ITO 원단 공급 부족으로 기존 GFF 방식 대비 필름을 1장 적게 사용하는 동사가 반사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동사의 4분기 영업이익률은 -4.7%p QoQ 하락한 5.2%으로 시장 기대치를 25%로 하회할 전망이다. 터치칩 영업이익률이 30%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터치패널 사업부가 영업적자일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가동률이 9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이유는 높은 제조원가 대비 기존 GFF방식보다 낮은 동사의 책정단가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 글로벌 터치칩 업체들의 연이은 신제품 출시로 경쟁 심화 우려

영업적자인 터치패널 사업부로 인해, 4분기 기준 멜파스의 영업이익의 161%가 터치칩 사업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동사의 경우, 갤럭시 S2 HD를 시작으로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에 터치칩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데, 최근 글로벌 경쟁업체들의 신제품 출시로 삼성전자 내 터치칩 공급 경쟁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멜파스는 2011년 초에 출시한 MMS-100시리즈 기반의 터치칩이 주력 제품인데, 글로벌 경쟁업체들은 2012년 4분기에 신규 모델을 출시하였다 [표 2 참조]. 터치칩 성능에 영향을 주는 Input 채널수도 경쟁업체의 신규제품이 멜파스 제품보다 많다.

■ 분기별 영업이익의 성장은 하반기부터 가능할 전망

멜파스의 2013년 매출액은 +51.6% YoY 성장한 5,666억원, 영업이익은 +17.7% YoY 성장한 313억원으로 전망한다. 결국 IT 중 소형 종목의 주가를 견인하는 것은 분기별 영업이익 성장[그림 3 참조]인데, 1) 상반기 터치패널 사업부의 영업적자 지속, 2) 터치칩 공급 경쟁 심화로 인한 영향으로 동사의 전사 영업이익은 하반기부터 QoQ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세전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2010A	252	38	39	36	2,257	(50.7)	40	12.8	11.2	3.6	31.3
2011A	256	15	15	15	883	(60.9)	22	28.8	20.1	3.0	10.9
2012F	374	27	19	16	948	7.4	37	28.5	13.9	3.0	11.3
2013F	567	31	31	24	1,357	43.1	42	18.2	12.3	2.5	14.8
2014F	652	36	36	27	1,560	14.9	47	15.9	12.0	2.2	15.0

*상기 보고서는 2013년 1월 1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이수정 (sujeong.lee@truefriend.com) ☎ 02-3276-6252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01/04(금)	01/07(월)	01/08(화)	01/09(수)	01/10(목)	01/11(금)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011.94	2,011.25	1,997.94	1,991.81	2,006.80	1,996.67
	등락폭	-7.47	-0.69	-13.31	-6.13	14.99	-10.13
	등락종목						
	상승(상한)	419(10)	393(10)	370(12)	379(9)	473(12)	372(9)
	하락(하한)	377(0)	398(1)	430(1)	429(1)	308(3)	444(0)
	ADR	105.25	106.00	106.25	106.15	108.17	108.57
	이격도						
	10 일	100.68	100.55	99.89	99.53	100.16	99.58
	20 일	101.48	101.25	100.45	100.04	100.67	100.06
	투자심리	70	60	50	50	50	40
코스닥	거래량 (백만 주)	373	533	490	598	495	467
	거래대금 (십억 원)	4,677	3,942	3,904	3,944	4,471	4,364
	코스닥지수	504.84	508.72	509.01	511.94	514.48	515.42
	등락폭	5.77	3.88	0.29	2.93	2.54	0.94
	등락종목						
	상승(상한)	566(12)	529(10)	436(12)	483(7)	508(5)	451(11)
	하락(하한)	326(2)	390(0)	481(1)	421(0)	408(1)	469(1)
	ADR	100.50	101.82	105.66	109.29	109.87	110.83
	이격도						
	10 일	103.01	103.26	102.70	102.59	102.47	101.99
	20 일	103.02	103.74	103.67	104.02	104.26	104.18
	투자심리	50	60	70	80	80	90
	거래량 (백만 주)	395	412	426	494	427	436
	거래대금 (십억 원)	1,862	1,804	1,737	1,851	1,801	2,045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445.8	1,042.8	860.5	235.7	88.5	224.8	57.2	31.2	192.5	43.8
	매도	2,277.7	1,050.6	1,017.0	340.2	135.8	239.4	62.8	48.3	166.6	47.5
	순매수	168.0	-7.8	-156.5	-104.5	-47.3	-14.6	-5.5	-17.1	25.9	-3.7
	01 월 누계	68.1	357.3	-401.8	-148.3	223.9	-380.9	-115.1	33.2	22.9	-23.6
	13 년 누계	68.1	357.3	-401.8	-148.3	223.9	-380.9	-115.1	33.2	22.9	-23.6
코스닥	매수	1,877.6	62.7	108.3	14.9	17.8	31.6	6.0	5.5	29.4	19.1
	매도	1,864.0	71.5	109.2	17.0	11.4	28.5	8.4	2.7	36.2	22.9
	순매수	13.6	-8.8	-0.9	-2.1	6.5	3.1	-2.4	2.8	-6.8	-3.8
	01 월 누계	-104.3	17.3	96.5	14.9	18.2	36.5	5.5	-5.9	21.6	-9.5
	13 년 누계	-104.3	17.3	96.5	14.9	18.2	36.5	5.5	-5.9	21.6	-9.5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12,613	운수장비	-19,138
서비스업	8,602	금융업	-10,820
운수창고	4,597	증권	-8,089
SK하이닉스	10,764	하나금융지주	-11,014
TIGER 200	4,481	제일모직	-10,096
삼성전자	4,293	현대위아	-8,440
한진해운	3,597	현대모비스	-5,104
현대미포조선	3,362	우리투자증권	-4,846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가스업	11,037	유통업	-9,851
서비스업	10,030	화학	-6,857
철강및금속	6,132	섬유,의복	-4,797
한국전력	8,825	기아차	-9,266
고려아연	6,409	삼성물산	-6,693
현대차	5,933	삼성전기	-6,052
삼성생명	4,071	아모레퍼시픽	-4,666
SK텔레콤	3,820	LG패션	-4,179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통신업	2,137	전기,전자	-5,079
운수창고	1,442	운수장비	-4,631
화학	405	서비스업	-2,540
KT	2,732	삼성전자	-5,454
TIGER 200	2,363	현대모비스	-2,262
한진해운	1,753	현대차	-1,376
LG디스플레이	1,605	POSCO	-1,367
삼성전기	1,126	NHN	-952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창고	2,457	전기,전자	-15,156
철강및금속	1,547	운수장비	-11,955
음식료품	988	화학	-10,066
KINDEX200	5,289	삼성전자	-15,004
KODEX 200	4,520	SK이노베이션	-5,448
SK하이닉스	3,461	현대모비스	-5,184
고려아연	2,103	한국가스공사	-4,597
GKL	1,980	신한지주	-3,434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창고	11,371	전기,전자	-74,510
서비스업	8,497	운수장비	-57,800
음식료품	8,211	금융업	-26,257
KODEX 인버스	27,406	삼성전자	-67,869
한진해운	14,488	KODEX 레버리지	-43,624
SK하이닉스	14,194	기아차	-24,873
고려아연	12,955	제일모직	-21,458
SK텔레콤	8,140	현대모비스	-20,680
CJ	5,929	TIGER 200	-13,723
한전기술	5,853	현대건설	-12,425
호남석유	5,382	하나금융지주	-12,032
락앤락	5,352	현대위아	-11,442
대림산업	5,158	삼성SDI	-10,258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52,220	운수장비	-67,110
전기가스업	36,807	서비스업	-31,227
금융업	23,582	화학	-19,884
삼성전자	56,723	현대모비스	-37,243
한국전력	42,749	현대위아	-11,260
SK하이닉스	18,436	NHN	-10,470
하나금융지주	12,630	LG생활건강	-9,980
현대건설	12,051	LG디스플레이	-8,373
KB금융	6,871	한진해운	-8,322
OCI	6,214	LG전자	-7,532
GS	5,314	SK텔레콤	-7,294
현대백화점	4,751	삼성중공업	-7,007
KODEX 인버스	4,032	삼성엔지니어링	-6,697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금속	2,200
반도체	1,859
제약	1,351
성광벤드	1,433
서울반도체	1,297
게임빌	1,270
오스템임플란트	1,196
에스텍파마	897
방송서비스	-2,194
출판,매체복제	-1,669
기계,장비	-1,257
CJ오쇼핑	-2,222
에스에프에이	-2,219
에스엠	-1,629
멜파스	-1,190
하이비전시스템	-596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오락,문화	4,475
반도체	1,898
화학	795
파라다이스	4,391
서울반도체	2,352
덕산하이메탈	1,750
파트론	1,510
하나투어	1,194
출판,매체복제	-5,965
IT부품	-5,265
인터넷	-1,580
멜파스	-8,054
에스엠	-6,075
다음	-1,580
STS반도체	-1,563
하나마이크론	-1,009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기계,장비	534
방송서비스	455
인터넷	323
CJ오쇼핑	446
CJ E&M	377
다음	314
씨티씨바이오	306
아바코	208
제약	-91
전문기술	-90
음식료,담배	-73
이녹스	-382
국보디자인	-265
인터파크	-195
멜파스	-182
네패스	-165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기계,장비	2,430
오락,문화	2,363
방송서비스	2,115
파라다이스	2,301
CJ오쇼핑	2,130
에스에프에이	1,157
골프존	1,087
게임빌	1,018
출판,매체복제	-908
금속	-769
의료,정밀기기	-606
위메이드	-1,156
멜파스	-1,035
에스엠	-890
포스코엠텍	-589
STS반도체	-498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오락,문화	7,748
제약	2,657
반도체	2,624
파라다이스	7,305
CJ E&M	3,958
서울반도체	3,513
게임빌	2,869
파트론	2,657
하나투어	2,109
덕산하이메탈	1,994
이녹스	1,427
씨티씨바이오	1,271
오스템임플란트	1,214
IT부품	-12,402
출판,매체복제	-12,273
운송장비,부품	-2,929
멜파스	-17,933
에스엠	-12,325
STS반도체	-3,431
하이비전시스템	-1,912
성우하이텍	-1,801
하나마이크론	-1,734
위메이드	-1,422
평화정공	-1,140
세코닉스	-979
이노와이어	-690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방송서비스	2,913
인터넷	2,623
금융서비스	1,302
다음	2,831
CJ오쇼핑	2,364
진성티이씨	1,354
하이비전시스템	1,335
인터플렉스	1,045
한글과컴퓨터	675
메가스터디	636
GS홈쇼핑	540
오스템임플란트	392
미디어플렉스	380
제약	-3,541
디지털컨텐츠	-2,734
사업지원	-2,574
하나투어	-2,752
코미팜	-1,972
성광벤드	-1,939
네오위즈게임즈	-1,729
메디톡스	-1,594
제이콘텐츠트리	-802
이노칩	-763
고영	-751
게임빌	-691
실리콘웍스	-669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미래에셋증권	22 일	현대건설	29 일
TIGER	16 일	신도리코	12 일
원유선물(H)	11 일	한국셀석유	8 일
대상	8 일	에스엘	8 일
한화케미칼	8 일	한섬	8 일
락앤락	7 일	롯데쇼핑	8 일
삼성생명	6 일	POSCO	7 일
남양유업	6 일	현대중공업	7 일
한솔제지	6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이트레이드증권	17 일	메가스터디	24 일
동서	11 일	다음	13 일
비에이치아이	11 일	엘앤에프	12 일
하나투어	7 일	휴맥스	7 일
서울반도체	7 일	CJ오쇼핑	5 일
이오테크닉스	6 일	포스코엡텍	4 일
SBS콘텐츠허브	6 일	유진기업	4 일
SDN	6 일	GS홈쇼핑	4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현대모비스	49,254	한국전력	104,345
KODEX 인버스	37,641	하나금융지주	87,538
현대차	35,022	OCI	59,587
호남석유	33,144	현대건설	55,469
한국가스공사	24,429	KODEX 200	29,925
고려아연	24,349	POSCO	29,524
락앤락	24,184	SK하이닉스	29,514
한진해운	21,752	신한지주	29,438

KOSDAQ			
기	관	외	국 인
CJ E&M	16,103	다음	39,691
파라다이스	13,027	CJ오쇼핑	9,591
하나투어	12,977	동서	3,233
덕산하이메탈	10,525	GS홈쇼핑	2,985
코오롱생명과학	4,821	유진테크	2,780
에이블씨엔씨	4,551	골프존	2,284
에스에프에이	4,428	메가스터디	1,977
씨젠	2,875	위메이드	1,672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전기가스업	7,000	36,807	43,807
종이, 목재	1,471	80	1,551
의료정밀	242	660	902
한국전력	3,428	42,749	46,177
SK하이닉스	14,194	18,436	32,631
KODEX 인버스	27,406	4,032	31,438
고려아연	12,955	903	13,858
OCI	1,032	6,214	7,246
휠라코리아	1,646	1,127	2,774
두산인프라코어	198	2,556	2,754
일진디스플레이	2,183	444	2,627
CJ제일제당	2,131	126	2,257
유나이티드제약	1,831	84	1,915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방송서비스	720	2,913	3,633
인터넷	356	2,623	2,980
소프트웨어	2,148	208	2,356
CJ E&M	3,958	47	4,005
서울반도체	3,513	62	3,574
CJ오쇼핑	1,183	2,364	3,548
다음	21	2,831	2,853
덕산하이메탈	1,994	52	2,046
진성티이씨	597	1,354	1,950
한글과컴퓨터	1,033	675	1,709
오스템임플란트	1,214	392	1,606
이녹스	1,427	6	1,433
제이브이엠	755	12	766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삼성SDI	10 일	기아차	10 일	씨애헤이인터	20 일	성광벤드	16 일
삼성전기	10 일	KODEX 철강	10 일	동국산업	8 일	동진세미켐	11 일
동부제철	10 일	TIGER 레버리지	9 일	인터플렉스	8 일	SBS콘텐츠헤브	11 일
세아베스틸	9 일	대우인터네셔널	8 일	메가스터디	8 일	실리콘웁스	9 일
카프로	9 일	삼성화재	7 일	아트라스BX	7 일	AP시스템	7 일
한섬	9 일	현대모비스	7 일	포스코엠텍	5 일	하이록코리아	6 일
삼성카드	9 일	엔씨소프트	7 일	네오위즈게임즈	5 일	평화정공	6 일
삼양사	8 일	외환은행	6 일	주성엔지니어링	4 일	에스엠	5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삼성전자	-121,334	LG디스플레이	-83,424	멜파스	-31,141	성광벤드	-13,779
하나금융지주	-66,471	삼성전자	-73,883	다음	-26,548	하나투어	-8,728
KODEX 레버리지	-62,399	기아차	-68,608	인터플렉스	-6,750	서울반도체	-5,667
TIGER 200	-44,953	엔씨소프트	-62,725	에스엠	-5,278	메디톡스	-3,739
KODEX 200	-43,093	삼성중공업	-28,632	골프존	-4,610	에이블씨엔씨	-3,603
SK이노베이션	-43,002	삼성화재	-25,439	성우하이텍	-3,924	네오위즈게임즈	-3,219
S-Oil	-42,410	LG전자	-24,695	위메이드	-3,769	실리콘웁스	-3,197
현대건설	-39,201	KODEX 레버리지	-18,303	STS반도체	-3,314	덕산하이메탈	-2,917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운수장비	-57,800	-67,110	-124,910	IT부품	-12,402	-1,441	-13,843
화학	-24,459	-19,884	-44,343	출판,매체복제	-12,273	-25	-12,298
보험	-832	-10,616	-11,448	운송장비,부품	-2,929	-1,045	-3,974
현대모비스	-20,680	-37,243	-57,924	멜파스	-17,933	-611	-18,544
기아차	-24,873	-2,657	-27,530	에스엠	-12,325	-131	-12,456
현대위아	-11,442	-11,260	-22,702	STS반도체	-3,431	-149	-3,581
TIGER 200	-13,723	-624	-14,347	성우하이텍	-1,801	-482	-2,282
SK이노베이션	-8,841	-4,206	-13,047	하나마이크론	-1,734	-272	-2,006
LG생활건강	-1,526	-9,980	-11,506	네오위즈게임즈	-45	-1,729	-1,774
삼성SDI	-10,258	-1,127	-11,385	평화정공	-1,140	-64	-1,204
NHN	-473	-10,470	-10,943	에스에프에이	-541	-90	-631
LG전자	-2,099	-7,532	-9,631	매일유업	-364	-251	-615
S-Oil	-4,285	-5,196	-9,482	KG이니시스	-370	-171	-541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LG전자	279	21,202	
엔씨소프트	66	9,311	
아모레퍼시픽	6	7,257	
SK이노베이션	39	6,708	
삼성전자	4	6,476	
SK하이닉스	238	6,303	
POSCO	15	5,393	
현대미포조선	37	4,572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멜파스	51	1,292	
에스엠	26	1,159	
파라다이스	55	992	
다원시스	79	673	
옵트론텍	49	673	
크로바하이텍	79	536	
플렉스컴	23	524	
컴투스	9	409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3,756	5,746,395	
POSCO	9,332	3,364,055	
LG전자	38,937	2,951,454	
OCI	9,173	1,761,144	
NHN	3,713	850,292	
현대차	3,894	815,787	
현대중공업	2,790	669,565	
SK하이닉스	22,566	604,756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26,434	680,682	
서울반도체	5,903	150,233	
덕산하이메탈	3,082	75,044	
에스엠	1,657	73,327	
멜파스	1,866	46,175	
다음	426	44,353	
게임빌	392	41,053	
파라다이스	2,265	40,992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금융업	7,684	운수창고	-1,352
운수장비	6,458	종이, 목재	121
서비스업	5,163	증권	144
KT	4,437	현대상선	-991
LG전자	3,151	KEC	-927
신한지주	2,765	대한항공	-611
KB금융	1,949	KODEX 200	-546
우리금융	1,890	한화케미칼	-439
SK하이닉스	1,795	안국약품	-400
삼성중공업	1,730	남선알미늄	-247
삼성물산	1,304	KODEX 운송	-220
LG	1,234	현대그린푸드	-151
한진중공업	1,142	디아이	-149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순 증		순 감	
IT부품	2,082	제약	-374
반도체	1,292	금속	-61
금융	511	컴퓨터서비스	-45
서울반도체	650	안국약품	-400
멜파스	561	포스코엠텍	-248
한국토지신탁	511	루멘스	-214
서희건설	454	셀트리온	-198
네오퍼플	452	서한	-186
주성엔지니어링	348	MDS테크	-100
파라다이스	311	3S	-65
덕산하이메탈	300	인프라웨어	-63
옵트론텍	267	포스코 ICT	-63
한글과컴퓨터	251	위메이드	-56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01/07(월)	01/08(화)	01/09(수)	01/10(목)	01/11(금)
외국인	349.5	349.5	8.3	-34.7	45.0	8.7	-2.7	-7.8
기관계	-558.3	-558.3	-429.7	14.3	-112.8	-132.4	-42.3	-156.5
(투신)	-395.4	-395.4	-163.0	-46.3	-70.4	-50.0	18.2	-14.6
(연기금)	82.2	82.2	33.1	-4.5	-23.9	-2.3	33.9	29.9
(은행)	16.1	16.1	-6.4	-11.8	10.0	5.9	6.7	-17.1
(보험)	176.6	176.6	41.2	36.4	-28.9	3.6	77.5	-47.3
개인	236.1	236.1	446.6	25.6	78.4	131.1	43.5	168.0
기타	-27.4	-27.4	-25.2	-5.1	-10.5	-7.4	1.5	-3.7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01/04(금)	01/07(월)	01/08(화)	01/09(수)	01/10(목)
KOSPI	1,682.77	2,051.00	1,825.74	2,011.94	2,011.25	1,997.94	1,991.81	2,006.80
고객예탁금	12072.0	14068.5	17680.2	18031.7	17673.1	17424.8	17735.4	18011.7
(증감액)	2735.7	1996.5	3611.7	-155.8	-358.6	-248.3	310.6	276.3
(회전율)	52.6	51.5	34.2	37.1	33.0	33.0	33.3	35.4
실질예탁금 증감	-292.5	-3502.6	3775.5	-414.4	-415.6	-278.6	326.0	320.6
신용잔고	4359.5	5938.3	4476.3	3913.1	3935.9	3970.5	3981.4	4004.7
미수금	240.2	192.3	187.7	140.8	166.8	184.5	170.6	164.5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01/04(금)	01/07(월)	01/08(화)	01/09(수)	01/10(목)
전체 주식형	94,204	-469	-469	-196	-38	113	-4	-55
(ex. ETF)		-806	-806	-138	-104	-20	-69	-60
국내 주식형	68,282	-310	-310	-173	-13	137	21	-29
(ex. ETF)		-651	-651	-114	-83	4	-44	-35
해외 주식형	25,923	-159	-159	-24	-25	-24	-25	-26
(ex. ETF)		-155	-155	-24	-21	-24	-25	-26
주식 혼합형	9,907	-96	-96	-8	-18	-6	-6	-9
채권 혼합형	19,117	-89	-89	-14	-2	-1	-3	0
채권형	47,385	179	179	159	7	-57	88	89
MMF	71,354	8,221	8,221	3,194	1,222	709	-129	-306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01/07(월)	01/08(화)	01/09(수)	01/10(목)	01/11(금)
한 국	278	278	759	-33	-	-	-3	-7
대 만	-90	-90	801	-198	-235	-12	303	-
인 도	1,399	1,399	945	181	162	158	-	-
인도네시아	237	237	444	85	34	13	-24	-
태국	173	173	336	80	65	53	-153	-
남아공	242	242	290	16	-14	-	-95	-
필리핀	438	438	383	42	14	11	316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1년	01/04(금)	01/07(월)	01/08(화)	01/09(수)	01/10(목)	01/11(금)
회사채 (AA-)	4.21	2.88	3.25	3.23	3.23	3.19	3.23
회사채 (BBB-)	10.01	8.73	8.74	8.73	8.73	8.69	8.73
국고채 (3년)	3.34	2.74	2.76	2.74	2.75	2.70	2.74
국고채 (5년)	3.46	2.89	2.89	2.87	2.87	2.82	2.86
국고채 (10년)	3.79	3.13	3.10	3.05	3.05	3.02	3.05
미 국채 (10년)	1.88	1.90	1.90	1.87	1.86	1.90	-
일 국채 (10년)	0.99	0.83	0.83	0.84	0.83	0.83	-
원/달러	1,151.80	1,063.60	1,063.70	1,063.00	1,061.70	1,060.40	1,054.70
원/엔	1,492.00	1,206.00	1,211.00	1,217.00	1,214.00	1,204.00	1,184.00
엔/달러	77.24	88.23	87.84	87.37	87.47	88.09	89.08
달러/유로	1.29	1.30	1.30	1.31	1.30	1.30	1.32
DDR3 1Gb (1333MHz)	0.64	0.68	0.68	0.68	0.68	0.68	-
NAND Flash 16Gb (MLC)	2.81	1.90	1.90	1.90	1.90	1.91	-
CRB 지수	305.30	294.13	295.23	294.61	293.97	296.53	-
LME 지수	3,306.0	3,488.9	3,476.7	3,485.5	3,496.3	3,527.3	-
BDI	1,738	706	712	734	743	751	-
유가 (WTI, 달러/배럴)	98.83	93.09	93.19	93.15	93.10	93.82	-
금 (달러/온스)	1,566.80	1,648.90	1,645.80	1,662.20	1,655.50	1,678.0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

KOSPI200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선물시장 지표

(단위: P, 계약)

	기초자산	최근월물	베이스스			거래량	미결제약정	
	KOSPI200	1303월물	이론	마감	평균			증감
1월 7일	265.97	268.20	1.39	2.23	2.35	240,444	135,247	19,535
1월 8일	263.95	265.40	1.35	1.45	2.26	229,235	116,273	-18,974
1월 9일	262.90	264.35	1.32	1.45	1.85	206,833	115,179	-1,094
1월 10일	264.95	266.20	1.31	1.25	1.69	251,395	111,651	-3,528
1월 11일	263.32	264.75	1.30	1.43	1.30	252,772	109,831	-1,820

◆ 지수선물시장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단위: 계약)

	외국인	개인	기관종합					
			증권	투신	은행	보험	기금	
1월 7일	9,094	-2,511	-6,094	-4,477	-1,137	-143	-94	0
1월 8일	-14,650	6,827	7,551	5,477	1,252	223	130	-4
1월 9일	-2,358	2,173	388	322	59	-55	77	-3
1월 10일	483	102	-916	-1,807	1,198	-55	-206	-4
1월 11일	-3,409	222	3,295	2,867	20	243	40	-1
누적포지션	-11,021	12,115	-1,118	2,889	-4,607	689	-319	232

◆ 지수선물 프로그램 매매동향

(단위: 십억 원)

	프로그램 전체			비차익거래			차익거래			차익거래잔고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1월 7일	650	767	118	638	740	102	11	27	16	5,175	11,520
1월 8일	676	780	104	610	753	143	66	27	-39	5,123	11,333
1월 9일	750	656	-94	696	649	-47	54	6	-48	4,779	10,904
1월 10일	770	643	-126	641	634	-7	129	9	-119	4,678	10,247
1월 11일	846	617	-229	653	612	-41	193	5	-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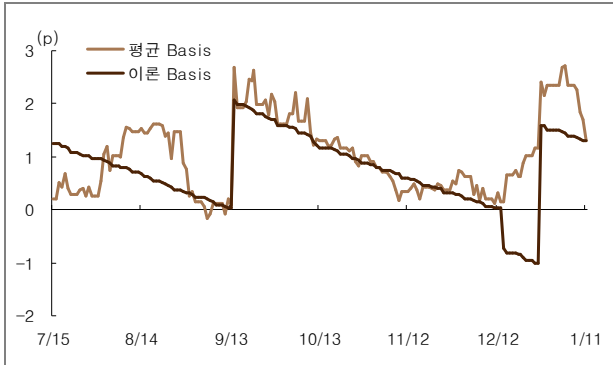
◆ 옵션시장 거래동향

(단위: 변동성(%)/가격(P))

콜옵션				행사가격	풋옵션			
변동성	미결제증감	거래량	현재가		현재가	거래량	미결제증감	변동성
12.48	4,947	132,310	0.46	277.50	13.65	52	10	10.26
12.45	5,634	169,065	0.74	275.00	11.45	185	102	11.02
12.48	6,469	141,898	1.16	272.50	9.25	936	145	10.77
12.83	2,971	157,060	1.84	270.00	7.50	3,583	312	11.69
13.35	10,572	74,681	2.79	267.50	5.85	7,580	695	11.98
14.40	4,040	24,745	4.15	265.00	4.55	18,489	1,579	12.58
13.62	719	6,260	5.15	262.50	3.35	55,826	2,491	12.70
14.03	1,009	4,338	6.75	260.00	2.47	141,595	1,947	13.11
14.67	208	1,802	8.60	257.50	1.83	173,046	2,531	13.66
16.16	207	391	10.80	255.00	1.28	152,870	3,335	13.92
15.67	50	87	12.65	252.50	0.89	107,008	2,153	14.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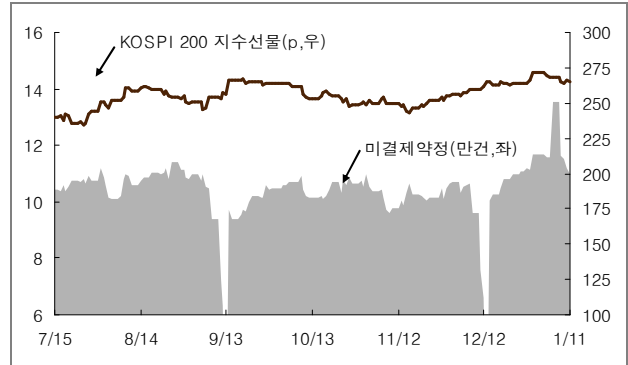
■ 주요 지표

이론 Basis & 평균 Ba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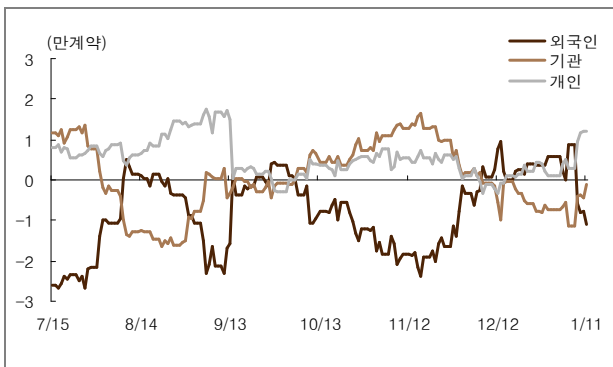
- 평균 Basis: 1.30 (전 거래일 대비 0.39 하락)
- 이론 Basis: 1.30

선물 가격 & 미결제 약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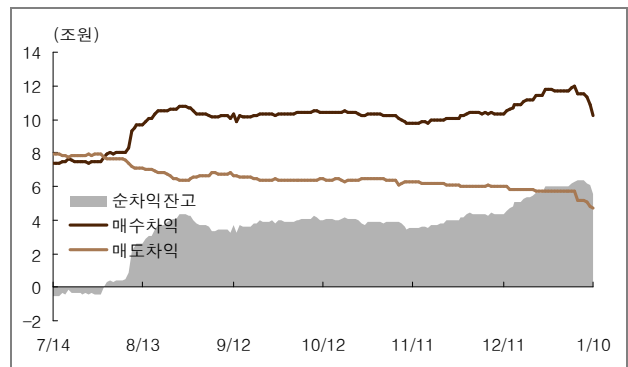
- 미결제약정: 전 거래일 대비 1,820 계약 감소한 109,831 계약
- 선물가격(264.75): 전 거래일 대비 1.45p 하락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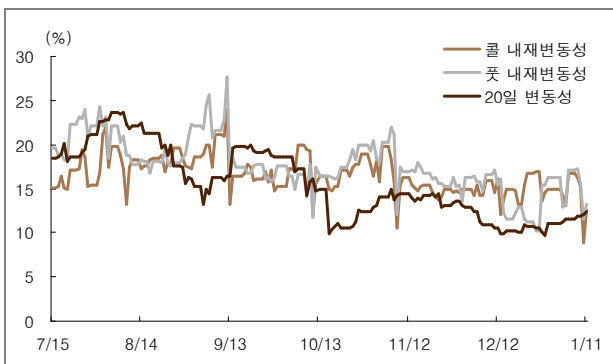
- 외국인: 3,409 계약 순매도
- 기관: 3,295 계약 순매수 / 개인: 222 계약 순매수

차익거래 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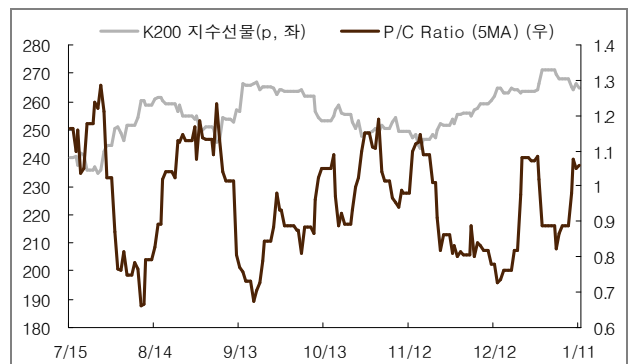
- 차익거래: 1,878 억원 순매도
- 비차익거래: 411 억원 순매도

KOSPI200 옵션 변동성 추이



- 대표 내재 변동성: 콜 12.5% / 풋 13.2% 기록
- 20일 역사적 변동성: 12.36% 기록

Put/Call Ratio



- 금액 기준 P/C Ratio(5MA): 1.06 기록

*** 데이터 불연속성은 선물 12년 12월물이 최근월물로 거래된 데 따른 것임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7	8	9	10	11
유럽> 1월 섹터 투자자기대지수 (n/a, -14.2, -16.8)	美> 12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 (88.0, 87.2, 87.5) 11월 소비자신용지수 (\$16.05B, \$12.75B, \$14.16B) 유럽> 11월 유로권 소매판매 YoY (-2.6%, -2.1%, -3.6%) 11월 유로권 실업률 (11.8%, 11.8%, 11.7%)	韓> 12월 실업률 (3.0%, 3.0%, 3.0%) 美> 주간 MBA 주택융자신청지수 (11.7%, n/a, -10.4%) 中> 12월 수출 YoY (1/10) (14.1%, 5.0%, 2.9%) 12월 수입 YoY (1/10) (6.0%, 3.5%, 0.0%) 12월 무역수지 (1/10) (\$31.62B, \$20.00B, \$19.63B) 12월 신규 외환 대출 (1/10) (454.3B, 550.0B, 522.9B) 12월 통화공급 M2 YoY (1/10) (13.8%, 14.0%, 13.9%)	韓> 12월 수출물가지수 YoY (-6.2%, n/a, -5.5%) 11월 통화공급 M2 YoY (0.2%, n/a, 0.2%)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37.1만, 36.5만, 37.2만) 유럽> ECB 금리 공시 (0.75%, 0.75%, 0.75%) BOE 금리 공시 (0.50%, 0.50%, 0.50%)	韓> 금통위 금리결정 (2.75%, 2.75%, 2.75%) 美> 12월 수입물가지수 YoY (-1.5%, -1.5%, -1.6%) 11월 무역수지 (-\$48.7B, -\$41.3B, -\$42.2B) 유럽> (1/11-12) 체코 대선 中> 12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2.5%, 2.3%, 2.0%) 12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1.9%, -1.8%, -2.2%) 日> 11월 경상수지 YoY (-276.4%, -84.1%, -29.4%)
14	15	16	17	18
유럽> 11월 유로권 산업생산 MoM (n/a, 0.3%, -1.4%) 中> 12월 실질 FDI YoY (미확정) (n/a, -2.0%, -5.4%)	美> 12월 소매판매액지수 MoM (n/a, 0.2%, 0.3%) 12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n/a, 1.4%, 1.5%) 유럽> 11월 유로권 무역수지 SA (n/a, n/a, 7.9B) 日> 12월 통화량 M2 YoY (n/a, 2.1%, 2.1%)	美> 주간 MBA 주택융자신청지수 (n/a, n/a, 11.7%) 12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n/a, 1.8%, 1.8%) 12월 산업생산 YoY (n/a, 0.2%, 1.1%) 1월 NAHB 주택시장지수 (n/a, 48, 47) 유럽> 12월 유로권 CPI YoY (n/a, 2.2%, 2.2%) 日> 12월 소비자자기대지수 (n/a, n/a, 39.4) 실적발표> 美 골드만삭스, JP모건체이스	韓> 12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n/a, n/a, -0.2%) 中> 12월 할인점 매출 YoY (미확정) (n/a, n/a, -1.7%) 12월 백화점 매출 YoY (미확정) (n/a, n/a, 9.1%)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n/a, 36.8만, 37.1만) 12월 건축 허가 MoM (n/a, 0.4%, 3.6%) 12월 주택건설 착공 MoM (n/a, 3.4%, -3.0%) 1월 필라델피아 연준 지수 (n/a, 5.6, 8.1) 실적발표> 韓 KT&G 美 이베이*, BOA, 씨티그룹	美> 1월 미시건대 소비심리평가지수 (n/a, 75.0, 72.9) 中> 4Q 실질 GDP YoY (n/a, 7.8%, 7.4%) 12월 산업생산 YoY (n/a, 10.2%, 10.1%) 12월 소매판매 YoY (n/a, 15.1%, 14.9%) 실적발표> 美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인텔*,GE
21	22	23	24	25
유럽> (21-22)유로존/EU 재무장관회의	美> 12월 기존주택매매 MoM 유럽> 유로권 소비자자기대지수(잠정치) 日> BOJ 정책금리 실적발표> 美 듀폰, 존슨앤존슨	美> 주간 MBA 주택융자신청지수 11월 주택가격지수 MoM 실적발표> 美 IBM*, 구글*, 맥도날드, 애플	韓> 4Q GDP YoY (잠정치)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12월 경기선행지수 유럽> 11월 유로권 경상수지 SA 1월 PMI 제조업(잠정치) 1월 PMI 서비스(잠정치) 中> 1월 HSBC 플래시 PMI 제조업 日> 12월 수출 YoY 12월 수입 YoY 실적발표> 韓 엘지디스플레이 美 넷플릭스, 쓰리엠	美> 12월 신규주택매매 MoM 日> 12월 국내 CPI YoY 실적발표> 美 AT&T*, 마이크로소프트*, P&G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이전치는 수정 값 미반영분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

